

국립국어원 소식

1. 국립국어원 말다듬기위원회, 다듬은 말 선정

1.1. ‘신스틸러’ 대신 ‘명품 조연’

- ‘신스틸러(scene stealer)’의 다듬은 말: 명품 조연
- ‘버킷 리스트(bucket list)’의 다듬은 말: 소망 목록
- ‘프로파일러/프로파일링(profiler/profiling)’의 다듬은 말: 범죄 분석가 / 범죄 분석
- ‘벤치 클리어링(bench clearing)’의 다듬은 말: (집단) 몸싸움, 수단 몸싸움
- ‘오픈 키친(open kitchen)’의 다듬은 말: 개방형 주방

‘신스틸러’는 ‘장면을 훔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 등에서 훌륭한 연기력이나 독특한 개성을 발휘해서 주연 이상으로 주목을 받는 조연’을 말한다. ‘버킷 리스트’는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나 꼭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한 목록’을 가리킨다.

‘프로파일러/프로파일링’은 ‘일반적 수사 기법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연쇄 살인 사건 수사 등에 투입되어 용의자의 성격, 행동 유형 등을 분석하고, 도주 경로나 은신처 등을 추정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또는 그러한 수사 기법’을 말한다. 그리고 ‘벤치 클리어링’은 ‘야구나 아이스하키 등의 스포츠 경기 도중 선수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을 때, 양 팀 선수들이 모두 벤치를 비우고 싸움에 동참하는 행동’을 말한다. ‘오픈 키친’은 ‘레스토랑, 식당 등에서 손님이 볼 수 있게 배치한 개방형 조리장’을 뜻하는 말이다.

1.2. ‘에어캡’ 대신 ‘뽁뽁이’

- ‘에어캡(air cap)’의 다듬은 말: 뽁뽁이
- ‘드라이브스루(drive-through)’의 다듬은 말: 승차 구매(점)
- ‘백패킹(backpacking)’의 다듬은 말: 배낭 도보 여행, 등짐 들살이
- ‘오티피(O.T.P.: One Time Password)’의 다듬은 말: 일회용 비밀 번호
- ‘파노라마 선루프(panorama sunroof)’의 다듬은 말: 전면 지붕창

‘에어캡’은 ‘완충 포장이나 단열 효과를 위해 사용하는 기포가 들어간 폴리에틸렌 필름’을 이르는 말로, 누르면 뽁뽁거리는 소리를 내기 때문에 ‘뽁뽁이’로 다듬었다. ‘드라이브스루’는 ‘운전자가 차에 탄 채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방식 또는 그러한 판매 방식의 상점’을 이르는 말로, 주로 즉석 음식(패스트푸드), 커피 등의 매장에 이런 서비스 방식이 많다.

‘백패킹’은 ‘1박 이상의 야영(들살이) 생활에 필요한 장비를 넣은 배낭을 짊어지고 산과 들을 마음 내키는 대로 자유롭게 걸어 다니는 여행’을 말한다. 그리고 ‘오티피’는 ‘무작위로 생성되는 난수(특정한 배열 순서나 규칙을 가지지 않는, 연속적인 임의의 수)로 구성된 일회용 비밀 번호 또는 그런 일회용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인증 방식’을 가리킨다. ‘파노라마 선루프’는 ‘차량 지붕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강화 유리 등으로 덮은 지붕창(선루프)’을 뜻하는 말이다.

2. 국립국어원 원내 토론회

2.1. 2014년 제14회 원내 토론회

- 주제: 국어 복수 한자음의 단순화 과정에 대하여
- 발표자: 이준환(창원대학교 교수)
- 일시: 2014년 12월 1일(월) 16:00~17:30
- 장소: 국립국어원 2층 대회의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창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이준환 교수가 ‘국어 복수 한자음의 단순화 과정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복수 한자음의 역사적 양상과 단순화 과정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한자 가운데에는 둘 이상의 음을 지닌 복수음자(複數音字)가 적지 않다. 이렇게 한자가 둘 이상의 음을 지니는 것들은 대개 한어(漢語)에서 복수 한자음을 지닌 데에 근거를 둔 것이며 한자의 의미 분화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한자음과 뜻에 관한 정보를 실은 《광운(廣韻)》(1008)과 《집운(集韻)》(1066) 등의 운서(韻書)를 찾아서 반절(反切)을 확인해 보면 이들 복수 한자음의 연원을 대개 추적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한글을 이용하여 국어 한자음에 관한 정보를 실은 운서인 《동국정운(東國正韻)》(1448)에도 복수 한자음의 양상이 자세히 반영되어 되어 있는데, 이런 양상은 이후의 《화동정음통석운고(華東正音通釋韻考)》(1747), 《삼운성휘(三韻聲彙)》(1751), 《규장전운(奎章全韻)》(1796) 등의 운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또 《전운옥편(全韻玉篇)》(1796?), 《국한문신옥편(國漢文新玉篇)》(1908), 《자전석요(字典釋要)》(1909), 《신자전(新字典)》(1915) 등의 사전에도 복수 한자음의 양상이 자세히 반영되어 있으며, 《훈몽자회(訓

蒙字會》(1527), 《신증유합(新增類合)》(1576), 《주해천자문(註解千字文)》(초간본 1752/중간본 1804) 등의 초학서에도 복수 한자음이 꽤 나타난다.

이처럼 복수 한자음은 중세 국어 시기만 하더라도 그 음이 두루 인식되었던 것들인데 근대 국어 시기와 개화기를 거쳐 현대 국어 시기에 이르는 동안 우열 관계가 심해지면서 어느 하나의 음으로 단순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양상이 나타난 데에는 의미가 중요하게 관여하고 있다. 즉 복수 한자음이 나타내는 의미 사이의 유사성 때문에 어느 하나의 음으로 통일되거나, 같은 뜻과 음을 지닌 다른 한자가 있을 때에 이 한자로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거나, 사회가 변화하여 어떤 의미로 나타낼 대상이 줄어들거나 사라져서 사용 빈도가 높은 음만 살아남게 된 것이다. 이는 의미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복수 한자음의 단순화 양상을 입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기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첫째, 국어사 시기별로 한자음 사용 빈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조사하고, 이 빈도가 통시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전체의 추이를 볼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한자의 뜻과 음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초학서의 훈과 어휘집에 수록된 어휘에 의존하는 방법에서 벗어나 언해서에서 한자를 어떻게 번역하는지를 조사하여 뜻과 음의 관계를 두루 파악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유사한 뜻을 지니는 다른 한자와의 관계를 파악하여 한자 사이의 영향 관계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로써 한자의 다의성 때문에 생긴 한자 사용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이나마 해소해 간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

이와 같은 연구로 자전에 나오는 한자음에 기대어 한자음의 기준을 삼고 정할 때에 생기는 현실 언어와의 괴리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교육용 한자와 인명용 한자에서 뜻과 음을 정할 때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준환 교수의 발표에 이어 복수 한자음의 지역적 차이, 속음의 출현 시기와 관련 문헌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복수 한자음의 변천과 정착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토론회가 마무리되었다.

2.2. 2015년 제1회 원내 토론회

- 주제: 훈민정음(訓民正音) 연구를 위한 기본 지식
- 발표자: 정우영(동국대학교 교수)
- 일시: 2015년 2월 23일(월) 16:00~17:30
- 장소: 국립국어원 2층 대회의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동국대학교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정우영 교수가 ‘훈민정음(訓民正音) 연구를 위한 기본 지식’이라는 주제로, ‘훈민정음(訓民正音)’과 관련된 정확한 기본 지식 제공을 위한 훈민정음의 원천 문헌인 《훈민정음》 해례본과 언해본을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훈민정음’이라는 명칭은 크게 ‘문자 체계’와 ‘책 이름’에 사용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세분해 말하면 첫째, 1443년 12월에 조선 세종이 창제한 문자 체계의 이름(오늘날의 ‘한글’), 둘째, 문자 ‘훈민정음’을 한문으로 해설한 책 이름(《훈민정음》 해례본(解例本)), 셋째, 한문 해설서 중에서 〈어제서문〉과 〈예의(例義)〉 부분을 우리말로 번역한 책 이름(《훈민정음》 언해본(諺解本)) 등 세 가지가 쓰이고 있다. 《훈

민정음》 해례본과 《훈민정음》 언해본은 ‘훈민정음’의 원천 문헌이다. ‘훈민정음’에 관한 대부분의 정보는 이 책들의 내용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곧 훈민정음을 정확히 이해하는 길이며, 나아가 훈민정음을 연구할 수 있는 기본 정석이라 할 수 있다.

《훈민정음》 해례본 〈예의편(例義篇)〉은 조선 세종(世宗)의 글로 ‘세종서문’과 ‘예의’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예의편〉이라고 하는데, ‘세종서문’에는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 취지가 밝혀져 있고, ‘예의’에는 ① 문자 ‘훈민정음’의 자모 규정으로 초·중·종성의 자형과 음가 등이, ② 국어의 문자화(文字化)를 위한 ‘문자 운용 규정’이 제시되어 있다. 《훈민정음》 해례본 〈해례편(解例篇)〉은 세종의 글인 ‘예의’를 바탕으로 정인지를 비롯한 집현전 학자 8명이 작성한 해설 부분이다. ‘제자해’에서는 ‘훈민정음’을 만든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초성해·중성해·종성해에서는 각각 초성·중성·종성에 대한 해설을, 합자해에서는 초성·중성·종성을 합쳐 쓰는 방법을 해설하였다. 산문으로 된 각 해(解)의 끝마다 ‘결왈(訣曰)’이라 하고 앞서 해설한 내용을 운문인 7언의 한시로 압축해 표현한 것이 특이하다.

훈민정음의 해례본과 언해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세종서문’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정인지서’를 제1의 보충·해설 자료로 삼아서 정확히 독해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인지서’는 ‘세종서문’에 대하여 2/3 분량에서 “자세하게 해석을 붙인다(詳加解釋)”는 관점으로 해설·보충·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종성부용초성(終聲復用初聲)” 규정은 〈해례편〉의 ‘제자해(制字解)’뿐만 아니라 ‘표기 규정’과 관련되어 있는 ‘종성해(終聲解)’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규정은 비록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종성 제자(制字)’에 관한

규정'과 '종성 표기(表記)에 관한 규정'의 두 가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고안된 중의적 규정이다. 셋째, 1447년 《석보상절》 간행 시에 《훈민정음》의 언해본이 간행되었다는 견해도 있으나, 《석보상절》이 만 들어지면서 책 안에 들어 있는 범어의 중국어 표기를 읽기 위해 이미 1446년 12월 말 정도에 번역, 간행된 《훈민정음》 언해본에 한음치성(漢音齒聲) 규정만을 추가 번역해 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훈민정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연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첫째, 대한민국 대표 사전인 《표준국어대사전》에 기술된 훈민정음 관련 정보의 표준화와 보완 정비가 시급하다. 문자 체계의 명칭인 '훈민정음'이나 '정음'의 개념을 비롯하여 아직도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용어들, 그리고 정확하게 해설되지 않은 것들이 여러 개 발견된다. 둘째, 《훈민정음》 해례본을 컴퓨터 그래픽으로라도 복원할 필요가 있다. 훈민정음 연구자들의 연구 역량을 결집해 국가사업으로 복원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의 고전(古典)이자 세계기록유산인 《훈민정음》 해례본을 표준 번역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국어 번역본을 보완해 제작할 필요가 있다.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은 후속 세대에 달려 있는데, 한자·한문을 해독하지 못하는 '한글세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70여 년간 축적된 훈민정음 연구와 관련 분야 연구자들의 진지한 학문적 토론을 거쳐 표준화된 공역 추진이 필요하다.

정우영 교수의 발표에 이어 훈민정음 제목의 의미와 해석,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혼용되는 '자(字)'와 '성(聲)'의 차이, '종성부용초성(終聲復用初聲)'의 중의적 규정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훈민정음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정확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3. 정부 · 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
- 〈정부 · 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료 위치: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korean.go.kr>)
 - ‘자료 찾기’ → ‘연구 결과’ → ‘기타 자료’ → 검색: 검색어 ‘역대 심의결정안’
-

- 정부 · 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2014년 30차 심의 확정안(2014. 11. 14.)
- 정부 · 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2014년 31차 심의 확정안(2014. 11. 21.)
- 정부 · 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2014년 32차 심의 확정안(2014. 11. 27.)
- 정부 · 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2014년 33차 심의 확정안(2014. 12. 10.)
- 정부 · 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2014년 34차 심의 확정안(2014. 12. 19.)
- 정부 · 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2014년 35차 심의 확정안(2014. 12. 29.)
- 정부 · 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2014년 36차 심의 확정안(2014. 1. 8.)
- 제118차 정부 · 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심의 결정안(2015. 2. 16.)

4. 「2014년 표준어 추가 사정안」 발표

국립국어원은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그동안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았던 ‘빠지다, 놀잇감, 속앓이, 판지’ 등 13개 항목의 어휘를 표준어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2014년 표준어 추가 사정안〉을 발표하고 국립국어원 누리집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main.jsp>)에 반영하였다.

국립국어원은 1999년에 국민 언어생활의 길잡이가 되는 《표준국어대사전》을 발간한 이후 언어생활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은 단어들을 검토하는 일을 꾸준히 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011년에 ‘짜장면, 맨날, 눈꼬리’ 등 39개 항목을 표준어로 추가하였으며, 2014년에 다시 ‘빠지다, 놀잇감, 속앓이, 판지’ 등 13개 항목을 표준어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된 표준어는 2014년 8월 29일 국어심의회에서 최종 확정된 것으로, 그동안 국립국어원이 어문 규범과 《표준국어대사전》의 보완을 위해 시행해 온 어휘 사용 실태 조사와 말뭉치 검색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언어생활에서 사용 빈도가 높고 표준어로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것들을 선별한 것이다.

이번에 새로 표준어로 인정한 항목은 크게 두 가지다.

4.1. ‘빠지다’, ‘빠치다’ 등 복수 표준어 인정

현재 표준어와 같은 뜻으로 널리 쓰이는 말을 복수 표준어로 인정했다. 그동안 ‘빠지다’는 비표준어로서 ‘빠치다’로 써야 했으나 앞으로는 ‘빠지다’도 ‘빠치다’와 뜻이 같은 표준어로 인정된다. 이렇게 복수 표준어로 인정된 말은 ‘빠지다’, ‘눈두덩이’, ‘구안와사’, ‘초장초’, ‘굽신거리

다’ 등 모두 5개 항목이다.

복수 표준어를 인정하는 것은 ‘발음이 비슷한 단어들이 다 같이 널리 쓰이는 경우에는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표준어 규정」의 원칙을 따르는 것으로, 이미 써 오던 것(‘빼치다’)과 추가로 인정된 것(‘빼지다’)을 모두 교과서나 공문서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표준어를 익히기 위해 따로 수고를 들일 필요 없이 둘 중 선호하는 어휘를 자유롭게 사용하면 된다.

[표 1] 2014년 표준어 추가 사항: 복수 표준어

추가된 표준어	현재 표준어
구안와사	구안괘사
굽신*	굽실
눈두덩이	눈두덩
빼지다	빼치다
초창초	작창초

* ‘굽신’이 표준어로 인정됨에 따라, ‘굽신거리다, 굽신대다, 굽신하다, 굽신굽신, 굽신굽신하다’ 등도 표준어로 함께 인정됨.

4.2. ‘놀잇감’ 등 뜻과 어감이 다른 말을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

현재 표준어와는 뜻이나 어감이 다른 말을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그동안 ‘놀잇감’은 ‘장난감’으로 써야 했으나 ‘놀잇감’과 ‘장난감’은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놀잇감’을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이렇게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한 말은 ‘놀잇감’, ‘개기다’, ‘사그라들다’, ‘속앓이’, ‘허접하다’, ‘판지’, ‘섬찔’, ‘꼬시다’ 등 모두 8개 항목이다.

한편, 국어심의회에서는 ‘RADAR(radio detecting and ranging)’의

한글 표기로 ‘레이다’와 ‘레이더’를 복수로 인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어 발음이 [reIda:(r)]인 것을 반영하여 ‘레이다’를 기본적인 표기로 새로 인정하되, 교과서 등에서 그동안 널리 써온 ‘레이더’도 관용적인 표기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표 2] 2014년 표준어 추가 사항: 별도 표준어

추가 표준어	현재 표준어	뜻 차이
개기다	개개다	개기다: (속되게) 명령이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버티거나 반항하다. (※개개다: 성가시게 달라붙어 손해를 끼치다.)
꼬시다	꺾다	꼬시다: ‘꺾다’를 속되게 이르는 말. (※꺾다: 그럴듯한 말이나 행동으로 남을 속이거나 부추겨서 자기 생각대로 끌다.)
놀잇감	장난감	놀잇감: 놀이 또는 아동 교육 현장 따위에서 활용되는 물건이나 재료. (※장난감: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여러 가지 물건.)
딴지	딴죽	딴지: (주로 ‘걸다, 놓다’와 함께 쓰여) 일이 순순히 진행되지 못하도록 꾀방을 놓거나 어기대는 것. (※딴죽: 이미 동의하거나 약속한 일에 대하여 딴전을 부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사그라들다	사그라지다	사그라들다: 삭아서 없어져 가다. (※사그라지다: 삭아서 없어지다.)
섬찔*	섬뜩	섬찔: 갑자기 소름이 끼치도록 무서무서하고 끔찍한 느낌이 드는 모양. (※섬뜩: 갑자기 소름이 끼치도록 무섭고 끔찍한 느낌이 드는 모양.)
속알이	속병	속알이: 「1」속이 아픈 병. 또는 속에 병이 생겨 아파하는 일. 「2」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속으로 걱정하거나 괴로워하는 일. (※속병: 「1」몸속의 병을 통틀어 이르는 말. 「2」‘위장병 01’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3」화가 나거나 속이 상하여 생긴 마음의 심한 아픔.)
허접하다	허접스럽다	허접하다: 허름하고 잡스럽다. (※허접스럽다: 허름하고 잡스러운 느낌이 있다.)

* ‘섬찔’이 표준어로 인정됨에 따라, ‘섬찔하다, 섬찔섬찔, 섬찔섬찔하다’ 등도 표준어로 함께 인정됨.

국립국어원은 언어 사용 실태 조사 및 여론 조사를 통하여 국민의 언어생활에 불편한 점이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규범에 반영함으로써 국민들이 국어를 사용할 때에 더욱 만족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5. ‘유커’보다는 ‘중국(인) 관광객’을 써 주세요

5.1. ‘유커’는 어려운 외국어, ‘중국(인) 관광객’은 쉬운 한국어

최근 언론에서 종종 사용하는 ‘유커’는 ‘유객(遊客)’의 중국어 발음을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한 것이다. 그런데 ‘유커’는 중국어에서 ‘여행객’ 또는 ‘관광객’을 뜻하는 말이다. 따라서 이 말을 바로 ‘한국으로 여행 온 중국인 관광객’을 뜻하는 말로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더구나 이 말은 어려운 외국어이므로 이제부터는 ‘유커’ 대신 ‘중국 관광객’ 또는 ‘중국인 관광객’처럼 알기 쉬운 말로 바꾸어 써야 하겠다.

그리고 현재 ‘遊客’을 ‘요우커’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국립국어원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공동 운영하는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제118차 회의(2014. 12. 3.)에서는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유커’로 적기로 결정하였다.

5.2. 타이의 유명한 관광지 이름은 ‘푸켓’이 아니라 ‘푸껫’

한편, 국립국어원은 해외 주요 여행지 가운데 한글 표기에 혼란이 많은 대표적인 지명 20개를 선정하였다. 예를 들어 타이의 관광지 ‘Phuket’의 외래어 표기를 ‘푸켓’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타이어 표기법에 따르면 ‘푸껫’이 올바른 표기이다. 일반적으로 외래어를 표기

할 때는 된소리를 적지 않는 것이 원칙(예: 샷포로, 잘츠부르크, 몽마르뜨)이지만 타이어와 베트남어에 한해서는 ‘푸켓, 호찌민, 냐짱’과 같이 된소리 표기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3] 자주 틀리는 외국 관광지 이름 20선

번호	국가	지명(원어 표기)	지명(규범 표기)	지명(표기 실태)
1	러시아	Vladivostok	블라디보스토크	블라디보스톡
2	말레이시아	Kuala Lumpur	쿠알라룸푸르	쿠알라룸프/칼라룸푸르
3	미국	Las Vegas	라스베이거스	라스베가스
4	미국	Grand Canyon	그랜드캐니언	그랜드캐년
5	미국	Manhattan	맨해튼	맨하탄
6	베트남	Ho Chi Minh	호찌민	호치민
7	베트남	Nha Trang	냐짱	나트랑
8	스위스	Zürich	취리히	쾰리히
9	스페인	Cordoba	코르도바	꼬르도바
10	싱가포르	Singapore	싱가포르	싱가폴
11	오스트레일리아	Melbourne	멜버른	멜번/멜번
12	오스트리아	Salzburg	잘츠부르크	잘쯔부르크
13	이탈리아	Sorrento	소렌토	쏘렌토
14	일본	きゅうしゅう	큐슈	큐슈
15	일본	さつぽろ	삿포로	삿뽀로
16	중국	Tibet	티베트	티벳
17	캄보디아	Angkor Wat	앙코르와트	앙코르왓
18	타이	Phuket	푸켓	푸켓
19	타이완	高雄 (Gāoxióng)	가오슝	까오슝/카오슝
20	프랑스	Montmartre	몽마르뜨르	몽마르뜨/몽마르트

6. 2015년 상반기 국어문화학교 국어전문교육과정 운영 계획

6.1. 2015년 상반기 국어문화학교 국어전문교육과정

가. 교육 개요

- 내용: 어문 규범, 공문서 바로 쓰기, 우리말 다듬기 등 국어 관련
과목 20강좌 35시간
- 장소: 국립국어원
- 기간: 5일간(월~금), 비합숙

나. 교육 일정(2015년 상반기)

- 3월 1기: 2015. 3. 9.(월)~3. 13.(금)
- 3월 2기: 2015. 3. 16.(월)~3. 20.(금)
- 4월 1기: 2015. 4. 6.(월)~4. 10.(금)
- 4월 2기: 2015. 4. 13.(월)~4. 17.(금)
- 5월 1기: 2015. 5. 11.(월)~5. 15.(금)
- 5월 2기: 2015. 5. 18.(월)~5. 22.(금)
- 6월 1기: 2015. 6. 8.(월)~6. 12.(금)
- 6월 2기: 2015. 6. 15.(월)~ 6. 19.(금)

다. 수료생에게는 교육 훈련 점수(선택 전문 교육 훈련 과정, 35시간)
부여

라. 교육비: 100,000원(수강료 · 교재비: 100,000원)

마. 연락처: 02-2669-9662, 9729, 9752 (전송: 02-2669-9787)

6.2. 국어문화학교 국어전문교육과정 주요 강좌 내용

가. 국어 어문 규범 분야

-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원칙과 실례 익히기
- 일상생활에서 틀리기 쉬운 말과 구별해야 할 말 익히기

나. 글을 바르게 쓰기

- 공문서 바로 쓰기: 공문서에서 흔히 잘못 쓰는 예를 유형별로 찾아보고 바르게 고치기. 고쳐 쓰면 좋을 단어와 문장 표현 제시
- 글쓰기 지도: 수강생이 직접 쓴 글을 첨삭하여 지도
- 우리말 다듬기: 일본어식 한자어, 어려운 한자어, 서구 외래어·외국어, 비속어 등 국어 순화의 대상과 결과, 바른말과 쉬운 말 제시

다. 말을 바르게 하기

- 표준 발음: 틀리기 쉬운 발음을 중심으로 표준 발음법 소개, 실례 익히기
- 협력적 의사소통: 의사소통의 효과적 방법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듣고 말하기 등의 훈련

라. 국어와 문화 관련 특강

- 바람직한 언어 환경(일상 언어, 방송 언어, 길거리 간판, 안내문, 공공 언어 바르고 쉽게 쓰기 등), 우리말에 나타난 한국인의 문화, 언어와 심리, 말과 정신의 관계, 새로운 세기의 문화와 산업 등
- * 특강 주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7. 2015년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일정

7.1. 2015년도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 자격 심사) 일정

구분	1차 심사	2차 심사	3차 심사	비고
심사 계획 공고	2015. 2. 2.	2015. 7. 27.	2015. 11. 2.	
심사 신청 접수	2015. 3. 2.~ 2015. 3. 13.	2015. 8. 31.~ 2015. 9. 11.	2015. 12. 7.~ 2015. 12. 18.	
심사 결과 발표	2015. 4. 27.	2015. 10. 26.	2016. 2. 5.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 (http://kteacher.korean.go.kr)
자격증 교부	2015. 5월 중순	2015. 11월 중순	2016. 2월 말	주소지로 등기 우송

7.2. 2015년도 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양성기관 심사) 일정

구분	1차 심사	2차 심사	비고
심사 계획 공고	2014. 12. 5.	2015. 5. 29.	
심사 신청	2015. 1. 5.~ 2015. 1. 9.	2015. 6. 29.~ 2015. 7. 3.	
1차 심사 결과 발표	2015. 1. 23.	2015. 7. 17.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 (http://kteacher.korean.go.kr)
재심사 신청	2015. 1. 26.~ 2015. 1. 30.	2015. 7. 20.~ 2015. 7. 24.	
2차 심사 결과 발표 (최종)	2015. 2. 13.	2015. 8. 7.	

- 불가피한 경우 위의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심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매회의 심사 계획 공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문장 부호 해설》 발간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 12월 5일 문장 부호 관련 규정의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글 맞춤법 일부 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0039호, 2015년 1월 1일 시행)을 고시하였다. ‘문장 부호’는 〈한글 맞춤법〉(1988)의 부록으로 실려 있는데, 26년 만에 새 옷을 입게 된 것이다.

‘문장 부호’는 1933년 당시 조선어학회(지금의 한글학회)가 제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도 부록으로 실려 있었다. 당시 ‘문장 부호’는 모두 16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는데, 부호마다 한 줄 정도의 설명만 덧붙인 정도로 간단하게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1988년에 〈한글 맞춤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문장 부호’도 새롭게 탈바꿈하게 되었다. 모두 24종(가로쓰기 20종, 세로쓰기 4종)에 이르는 문장 부호의 용법을 66개 조항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규정하게 된 것이다. 당시 ‘문장 부호’는 원고지 중심의 전통적인 글쓰기 환경에 맞추어 제정되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글쓰기 환경이 컴퓨터와 인터넷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실제 언어생활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문장 부호와 그 용법을 반영한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학계, 출판계, 언론계 등 각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1996년 이후 꾸준히 개정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였고, 2014년 8월 29일에 열린 국어심의회에서 비로소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새 ‘문장 부호’는 이전 규정에 맞추어 쓰더라도 틀리지 않도록 하되, 현실적인 쓰임에 맞도록 허용 규정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개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규범의 현실성을 높여 누구나 문장 부호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새 ‘문장 부호’는 가로쓰기만을 대상으로

부호 24종의 용법을 94개 조항으로 나누어 현재의 다양한 쓰임새를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온점’과 ‘반점’으로 부르던 부호 ‘.’과 ‘,’에 대하여 각각 ‘마침표’와 ‘쉼표’라고 하고 기존에 부르던 이름도 쓸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줄임표’를 다양한 형태로 쓸 수 있게 하는 등 사용자 편의와 활용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 《문장 부호 해설》은 새 ‘문장 부호’에 대한 이해를 도와 문장 부호가 언어생활에 바르게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펴내게 되었다. 규정에서는 미처 담지 못한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문장 부호 용법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글을 쓸 때 늘 곁에 두면서 활용하면 좋은 지침이 될 것이다.

※ 《문장 부호 해설》은 국립국어원 누리집 ‘알림·소식 → 알립니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9. 국립국어원, 국내외 한국어 교원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 ‘한국어교수학습센터’개통

국립국어원은 전 세계 한국어 교원들이 시·공간과 비용의 제약 없이 교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국어 교수 학습 누리집, ‘한국어교수학습센터’(이하 샘터, <http://kcenter.korean.go.kr>)를 올해 3월부터 개통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9.1. 한국어교원의 자질 향상을 통한 한국어교육 경쟁력 강화 추진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국내외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자는 시행 첫 해인 2006년 800여 명에서 2015년 3월 현재 1만 7,000여 명(누적치)으로 약 20배가량 증가하였다. 폭발적인 한국어 교육 수요를 감안한다면 이러한 교원 자격자의 양적 팽창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이들의 자질 향상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 또한 크다.

국립국어원에서는 해마다 교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강의, 워크숍 등의 교육과 연수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늘어나는 수요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국내외 한국어 교육 종사자와 예비 종사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각종 정보를 효율적으로 찾고 스스로 자질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수학습센터’를 개통했다.

한국어교수학습센터는 이용자 접근 용이성과 제공 자료의 신속·정확성, 최신화에 중점을 두어 ‘메뉴 최소화, 내용 최대화’ 전략을 추구하였다. 사이트에 들어갈 때마다 ‘화제의 교육 자료’가 검색 순으로 펼쳐진다. ▲ 가르침터 ▲ 정보나눔터 ▲ 이야기터 ▲ 나의 샘터 등 4개 대메뉴에서 그동안 국립국어원에서 개발·발간했던 한국어 교육 관련 교재 등을 동영상, 문서, 음성, 전자책 등 다양한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

[표 4] 한국어교수학습센터 메뉴

사이트 내용		
가르침터	수업 자료실	교수 참고 자료
		한국어 교재
		기초 연구 자료
	온라인 강의실(2015년 콘텐츠 탑재 예정)	
정보나눔터	한국어 관련 소식	
	한국어 교원 연수 일정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안내)	
	채용 정보	
이야기터	질의응답	
	한국어 교육 정책 제안	
	커뮤니티	
	자료 공유	

9.2.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한국어교원 온라인 학습 체계 구축

국립국어원은 올해 사이트 이용 상황과 이용자 의견, 한국어 교육계 의견 등을 수렴하여 센터 서비스를 더욱 확대·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국내외 한국어 교원 대상 교재,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의 제공뿐 아니라 온라인 연수 강좌 개설, 휴대폰 등을 사용한 모바일 연수 등 언제 어디서나 질 좋은 교육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의 계획이 완수되면 ‘한국어교수학습센터’는 온라인 연수, 교원 간 체험 및 정보 교류, 정책 제안 기능을 소화하는 융합형 한국어교원 연수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사이트는 주로 ‘국내외 한국어 교원’을 위해 설계되었지만, 한국어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열린 공

간이다.

민현식 국립국어원장은 “한국어교수학습샘터가 전 세계 한국어 교육자, 나아가 학습자, 연구자를 위한 ‘정보의 샘터이자 쉼터’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한국어 교원은 물론 예비 교원, 학습자들도 샘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